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김 경 수*

Ⅰ 국문초록 Ⅰ

다산 정약용과 혜강 최한기는 독창적이며 탈성리학적인 철학체계를 수립하여, 조선 후기 극심한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심한 대표적 실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다. 다산과 혜강의 이러한 실천적 성격은 정치철학 분야에서 집약되어 나타나기에, 『대학』 해석에 나타난 양자의 정치리더십을 비교하는 것은 그 철학적 특징들을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정치리더십을 핵심역량과 그 행위의 성격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철학적 특징들을 비교 고찰한다. 먼저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에서는 다산과 혜강이 정치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행위의 성격에서는 핵심역량이 치인의 정치행위로 발휘될 때 나타나는 특징의 상이함을 비교한다. 다산과 혜강의 『대학』 해석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각각 ‘추서’와 ‘추측’이다. 그러므로 정치리더십의 비교는 추서와 추측 개념이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과 행위의 성격에 작용하는 양상을 추적하는 것을 연구방법으로 삼는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개화기 이전 국가 개혁론에 관한 민족 주체적 사유의 원형과 그 발전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정약용, 최한기, 정치철학, 대학, 리더십

Ⅰ 목 차 Ⅰ

I. 머리말	III. 추서와 추측 개념에 나타난 정치리더십의 행위와 그 성격
II.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8)

** 경북대학교 철학과 강사 / k2soo96@naver.com

I. 머리말

다산 정약용(1762~1836)과 혜강 최한기(1803~1877)는 18~19세기 조선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을 개진한 대표적 실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생존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다산과 혜강의 시대적 배경은 봉당의 심화와 노론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폐해들, 농민들의 이반과 잦은 봉기, 신분제의 동요, 서학의 유입과 외세의 위협이라는 조선의 내외적 위기를 겪은 인물들이다. 이처럼 유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들의 철학은 당시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학 혹은 정치철학 분야를 철학의 종결지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철학적 특징에 주목하여 다산과 혜강의 정치철학은 그간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¹⁾ 그 결과 이들 각각에 관한 개별적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지만, 양자의 정치관을 비교한 논문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²⁾ 다산과 혜강 철학의 독창성과 심오함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개별 연구가 마땅히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앞에서 언급한 시대적 배경과 철학적 지향성뿐만 아니라, 양자의 철학에는 탈성리학적 성격과 원시유가의 존승과 계승이라는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양자의 정치철학을 비교하는 것은 이러한 공통점과 서로 간의 차별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상사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유의미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다산과 혜강의 저술의 방대함을 고려한다면, 양자의 정치철학에 관한 비교를 한 편의 논문에 싣는다는 것은 무모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연구의 초점을 『대학』이라는 단일한 텍스트로 고정하여, 다산과 혜강의 『대학』 해석에 나타난 정치리더십만을 본고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대학』은 수기치인이라는 유가 정치철학의 기본 구조를 담고 있다는 데서 정치관의 대체(大體)를 보기에 유용한 텍스트이다. 아울러 『대학』이 미래의 정치지도자를 위한 교육용 책이라는 점은 정치관의 대체가 정치리더십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대학』 해석에 나타난 양자의 정치리더십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경학 연구를 철학의 근간으로 삼는 다산의 경우는 『대학』에 대한 해석서가 존재하며, 이에 관한 논문들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³⁾ 반면 탈경학적 철학이라고 평가받는 혜강의 경우는 『대학』만을 주제로 삼은 저술은

1) 다산과 혜강의 정치철학에 관한 논문들의 많은 수가 민주주의와 민권론의 함의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된 연구경향은 정치관에 있어 개화기 이전 민족 주체적 차원에서 시도된 근대성의 징후를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들에 관한 목록과 간략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김경수, 「최한기 기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5쪽; 김경수 「다산 정약용의 민권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철학사상』 7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9, 4-6쪽.

2) 다산과 혜강을 비교한 논문은 다음의 두 편만이 있을 뿐이다. 금장태, 「다산과 혜강의 인간이해: 실학적 인간관의 두 유형」, 『東洋學』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4; 임형택, 「정약용의 경학과 최한기의 기학: 동서의 학적 만남의 두 길」, 『大東文化研究』 45,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원, 2004.

3) 이에 관한 대표적 논문들로는 다음의 네 편이 있다.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태학지도」, 『다산학』 8,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김선경, 「다산 정약용의 정치 철학: 『대학공의』 읽기」, 『한국사상사학』 26, 한국사상사학회, 2006; 이연수, 「다산의 『대학공의』 주석을 통해 본 리더십 교육」,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태동고전연구』 44: 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이 가운데 특히 김문식은 주희의 『대학장구』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저술 곳곳에는 대학의 각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들도 여러 편 존재한다.⁴⁾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산의 『대학공의』와 혜강의 관련 구절들을 기본 자료로 삼되, 이와 취지가 일치하는 다른 저술들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본문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2장에서는 수기치인을 관통하는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에 관하여, 3장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는데서 나타나는 정치리더십의 행위와 그 성격에 관해 비교 분석한다.⁵⁾ 이러한 분류를 통해 다산과 혜강이 시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주장한 정치리더십의 특징들과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별성 또한 함께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이란 정치지도자가 구비해야할 자격요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수기와 치인을 관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수기는 그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면, 치인은 그 자질을 정치에서 발휘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은 『대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자 키워드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산과 혜강의 추서(推恕)와 추측(推測) 개념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1. 다산의 대학 해석과 추서의 함의

『대학』은 수기와 치인의 연결 관계를 통해 유학의 정치 원리와 방법의 대체를 논한 책이다. 다산의 『대학공의』 또한 수기치인이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가의 전통적 해석을 계승한다. 하지만 수기치인에 관한 구체적 논의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철학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데, 주희의 『대학장구』와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분명히 부각된다.

주희는 수기치인을 철저한 본말구조로 파악하여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수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산에게서는 치인의 실천적 관점이 보다 강조된다. 치인의 실천에 보다 중점을 둔 다산의 이러한 특징은 비단 『대학공의』 뿐 아니라, 그의 정치철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정치’라는 주제만을 논한 「원정」에서 그가 공자의 “政者正也”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正’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치제도과 정치행위들로서 설명할 뿐 도덕

와 다산의 『대학공의』를 비교하면서 그 구조적 특징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김선경은 다산의 『대학』 해석은 위정자의 정치행위를 통해 정치 대상인 민의 욕망을 실현하기를 요구하는 정치철학으로 확장하고 있다는데서 시대적 의미를 찾고자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4) 혜강의 『대학』 해석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한 논문들은 많이 있으며, 이것만을 주제로 삼은 논문으로는 다음의 두 편이 있다. 김인석, 「최한기의 窮理 비판」, 『태동고전연구』 1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2; 백준철, 「崔漢縉의 이상사회론에 대한 고찰: 『大學』 八條目 중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0,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 5) 리더십은 다양한 범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 왔다. 본고에서의 ‘핵심역량’은 성공적인 리더의 자질을 탐구하는 리더십의 특성론적 연구에 해당하며, ‘행위와 그 성격’은 리더의 행동스타일을 탐구하는 리더십의 행동 연구에 속한다(김윤호 외, 『리더십의 이해』, 형성출판사, 2015, 35~44쪽 참조).

적 자수(自修)의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치인의 실천적 정치행위에 중점을 둔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대학공의』에는 수기와 치인의 분리 조짐이 나타난다는 평가들도 종종 제기되곤 하였다.⁶⁾ 본고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공의』의 궁극적 목적이 효제자의 인륜의 실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산은 「자찬묘지명」에서 『대학』 해석의 관점을 7조목으로서 요약하면서 ‘명덕이 곧 효제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대학공의』 내에서도 삼강령 전체를 효제자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산이 중점을 둔 치인의 실천적 정치행위들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효제자의 실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치지도자의 수기와 치인 또한 이 목적 하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공의』에 나타난 치인의 실천 방도는 크게 양민(養民)과 교민(教民)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양민에는 용인(用人)과 이재(理財)가 교민에는 태학에서의 효제자의 출신수법이 그 방법론으로서 거론되고 있다.⁷⁾ 그리고 이것은 유가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지도자에게 군사(君師)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다산 또한 정교(政教)를 모두 군주의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⁸⁾ 아울러 정교의 결합방식에 있어서도 ‘양민 이후에 교민’이라는 유가의 도식을 그대로 계승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다산이 비록 양민을 위한 치인의 정치행위에 중점을 두어 그 외연을 확대했다 할지라도, 양민은 결국 교민에 의한 인륜의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학공의』에서도 수기와 치인의 연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선진유가로부터 군주의 덕심은 양민과 교민의 방향을 덕치와 인정(仁政)으로 향하게 하는 근거로서 규정되어왔다. 만일 정치가 군주의 덕심이 아닌 사심(私心)에 근거한다면 교민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민의 바탕이 되는 양민 또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 유가의 기본 입장이다.⁹⁾ 이런 점에서 군덕은 유가 정치지도자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¹⁰⁾

기본적으로 덕치를 표방하는 다산에게도 군덕은 수기치인을 관통하는 군주의 핵심역량으로 규정된다. 다만 그의 덕 개념은 성리학의 본성론적 차원의 덕 개념과는 다르다. 마음에는 본래 덕이 없으며, 곧은 마음을 실행에 옮길 때에만 비로소 덕이라는 이름이 생긴다는 것이다.¹¹⁾ 이처럼 다산의 덕 개념은 행위와 결합된 것으로서, 『대학공의』의 효제자의 덕도 그 실천적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이러한 덕 개념을 다시 수기치인의 틀에 적용시켜보면, 치인의 정치행위를 강조하는 『대학공의』의 특징은

6) 이러한 평가와 그에 반하는 주장을 펼친 연구로는 이봉규의 논문이 있다(이봉규, 「사서 해석을 통해 본 정약용의 정치론」, 『다산학』 7,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7) 『大學公議』 권3-8, 議曰: “國者, 其大政有二, 一曰用人, 二曰理財.”

8) 『孟子要義』 권1, 「離婁第四 伯夷辟紂居北海之濱章」: “是知分田制產, 本使之養其父母, 孝弟之教, 自然行乎其中. 孰謂政教有二致乎?”

9) 『孟子』, 「盡心 下」 1장: “梁惠王, 以土地之故, 糜爛其民而戰之, 大敗, 將復之, 恐不能勝. 故驅其所愛子弟, 以殉之, 是之謂以其所不愛, 及其所愛也.”; 『孟子』, 「梁惠王 上」 7장: “緣木求魚, 雖不得魚, 無後災, 以若所爲, 求若所欲, 盡心力而爲之, 後必有災.”

10) 『孟子』의 「梁惠王」편에 나오는 여민동락(與民同樂)과 여민개락(與民皆樂)은 군주의 덕심이 양민과 교민을 위한 핵심역량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11) 『大學公議』 권1, 「在明明德」 鑰案: “心本無德, 惟有直性, 能行吾之直心者, 斯謂之德. 德之爲字, 行直心. 行善而後, 德之名立焉. 不行之前, 身豈有明德乎?”

정당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진유가와 마찬가지로 다산이 군덕을 핵심역량으로 삼으면서도 치인의 정치행위를 강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의 덕 개념에 있는 것이다.¹²⁾

다산이 『대학공의』에서 인의 실천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은 바로 ‘서(恕者 仁之道也)’이다.¹³⁾ 그의 서 개념은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는 뜻으로서 논어 등의 경전에서 나오는 서와 같은 의미로서, 특별히 그는 용서가 아닌 ‘추서(推恕)’만이 ‘서’라고 단언한다.¹⁴⁾ 용서란 상대방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내가 관용하는 것이라면, 추서는 초점을 자신에게 두고서 나를 통해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자신에게 선함이 있으면 그것으로써 상대방을 헤아려 선을 베풀고, 내게 악함이 있으면 그것으로써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 악을 베풀게 되는 것이 추서이다.¹⁵⁾

추서의 이러한 의미를 ‘인을 두 사람 사이의 관계(仁者 二人也)’로 정의한 『대학공의』의 언명에 비추어보면, 결국 추서란 두 사람 사이에서 효제자의 인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부자사이·형제사이뿐 아니라, 정치지도자와 민의 관계 역시 이인(二人)이라고 다산은 말한다.¹⁷⁾ 다만 정치지도자가 민의 효제자를 흥기시키기 위한 치인의 방도는 양민과 교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천 방법은 추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학공의』에서 양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제시된 용인과 이재를 살펴보면, 양자 모두 정치지도자가 백성의 욕망을 추서함으로써 수립된 정책인 것을 알 수 있다. 용인은 백성 가운데 윗자리에 있는 자의 욕망이 귀함에 있음을 헤아려서 등용의 정책을 베푸는 것이며, 이재는 백성의 욕망이 부유함에 있음을 추서하여 경제적 안정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추서의 방법론 역시 그 정당성은 선진유가에 둔다. 그리하여 다산은 성왕의 통치 요체인 ‘현현친친 낙낙이이’의 방법론이 바로 추서로서, 이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용인과 이재라고 강조하는 것이다.¹⁹⁾

정치지도자의 교민 또한 그 실천방법은 추서이다. 『대학공의』에서는 교민의 대법을 주자(胥子)가 태학에서 삼례(養老·序齒·恤孤)의 모범을 친히 보여서 민의 효제자를 흥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⁰⁾ 그리고

12) 이러한 특징은 성의와 격물치지에 관한 다산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산은 성의를 수기의 한 단계로 보지 않고, 치인의 정치행위에 있어 마음을 극진히 하라는 의미로서만 해석하는데, 이 해석 또한 그의 덕 개념으로부터 정당화된다. 또한 김선경은 다산이 격물치지를 독자적인 공부가 아니라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격물치지가 공부의 근본 단계가 되면 행사를 통한 덕의 실천은 더욱 뒤로 밀려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또한 일맥상통한다(김선경, 위의 논문, 27~28쪽).

13) 그는 ‘서’라는 하나의 글자가 모든 경서와 예법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도 강조하는데, 이런 점에서 서는 『대학공의』 뿐만 아니라 그의 저술 전체를 관통하는 인륜의 실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論語古今注』 권7, 「衛靈公 第十五」: “一者, 恕也. 五典十倫之教, 經禮三白, 曲禮三千, 其所以行之者, 恕也.”).

14) 『大學公議』 권3-7, ‘議曰’: “一恕字以貫上下, 以貫前後, 以貫左右. 但曰己所不欲, 勿施於人.”; 『大學公議』 권3-4, ‘鏞案’: “恕有二種, 一是推恕, 一是容恕. 其在古經, 止有推恕, 本無容恕.”

15) 『大學公議』 권3-4, ‘鏞案’: “推恕者, 主於自修, 所以行己之善也.”

16) 『大學公議』 권3-7, ‘議曰’: “仁者, 二人也. 事父孝曰仁, 子與父二人也. 事兄悌曰仁, 弟與兄二人也. 育子慈曰仁, 父與子二人也. 君臣二人也, 夫婦二人也, 長幼二人也, 民牧二人也.”

17) 각주 3번의 원문 참조.

18) 『大學公議』 권3-8, ‘議曰’: “大凡人生斯世, 其大欲有二, 一曰貴, 二曰富. 在上者, 其所欲在貴, 在下者, 其所欲在富.”

19) 같은 곳: “聖人知其然也, 故用人, 則賢其賢而親其親, 以待君子. 理財, 則樂其樂而利其利, 以待小人. 盛德至善之使民不忘, 其要在此.”

이러한 교민 정책 역시 백성이 효제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추서함으로써 수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치인의 정치 행위는 모두 추서의 방법론에 근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¹⁾

이처럼 양민과 교민으로 구성된 치인의 실천적 정치행위는 모두 군민(君民) 사이에서의 추서를 통해 그 정당성을 갖는다. 아울러 군민 사이에서의 추서는 그 주체가 군주라는 점에서 군덕에 속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대학공의』에서 수기치인을 아우르는 정치지도자의 핵심역량은 바로 추서인 것이다.

2. 해강의 대학 해석과 추측의 함의

해강은 당시 국내에 유입된 한역서학서의 과학적 성과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물로 잘 알려졌다으며,²²⁾ 그의 철학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결과 해강 철학에는 기를 통해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한 동양의 기일원론 철학과 서양과학의 경험적·실증적 학문방법론이 융합된 성격이 나타난다. 해강의 『대학』 해석은 이러한 동서 융합의 사유 과정에서 도출된 ‘기 개념’과 ‘학문방법론’에 근거하여 논의되고 있기에, 먼저 이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만물의 근원인 일기(一氣)를 운화기(運化氣)로 명명한다. 운화기는 만물의 근원이자 주재로서의 동양의 천관(天觀)과 서양의 자연과학적 대상으로서의 천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자연적인 생명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³⁾ 주목할 점은 기존의 도덕천이 자연천으로 전환됨으로써 운화기에는 장재의 태허기 혹은 주희의 리(理) 개념과 달리 도덕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운화기의 본성인 ‘활동운화(活動運化)’는 기의 운동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일 뿐 도덕성과는 무관하다는 특징을 지닌다.²⁴⁾

운화기는 이처럼 도덕성은 배제되어 있지만, 결국은 동양의 천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가 전통의 천일합일론적 사유는 여전히 해강 철학의 기본구조로서 남아있다. ‘운화기를 승순(承順)하여 천에 부합한 인도를 건립하는 것’, 이것이 그가 계승한 천일합일론적 사유이다.²⁵⁾ 하지만 문제는 운화기를 승순하는 방법이 있다. 도덕성이 배제된 천, 즉 운화기를 승순함에 있어 인간 도덕 본성의 수양과 확충이라는 도덕적 수기의

20) 『大學公議』 권3-6, ‘鑰案’: “先聖先王, 處胄子於太學, 教胄子以老老長長之禮, 示萬民以老老長長之法, 使嗣世之爲人君者, 身先孝弟, 以率天下, 使當世之爲臣民者, 興於孝弟, 咸歸大化. 其大經大法, 亦皆溷晦而不章, 其失不小.”

21) 『大學公議』 권3-7: “以我之孝弟慈, 知民之亦皆願孝弟慈. 於是就太學行三禮, 而民果興孝弟慈, 是故知我之所好, 人亦好之. 行聚矩之道, 即愨也.”

22) 17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국내에 유입된 한역서학서는 400종(種)이 넘는 막대한 수량이며, 그 중 천문학, 역법(曆法), 기하학, 지리학, 해부학, 기계학 등의 자연과학 서적은 전체의 1/4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최소자, 「17, 18世紀 漢譯西學書에 대한 研究: 중국과 한국의 사대부에게 미친 영향」, 『韓國文化研究院論叢』 3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1, 82쪽).

23) 손병욱은 자연적인 생명천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학의 천관이 서구 천문학의 물리적인 천관, 천체로서의 천관과 매우 유사하지만, 다만 기학은 이 천이 생명성을 지니고 생명활동을 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낳아 주는 본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서구 천문학의 천과 구분된다고 평가하였다(손병욱, 「최한기 氣學의 학문체계 탐구」, 실시학사 편, 『해강 최한기 연구』, 사람의 무늬, 2016, 55쪽).

24) 『氣學』 권2-77: “活動運化, 乃氣之性.”; 『氣學』 권2-84: “故以活動運化之性, 分排四端, 始可以形言. ……則又釋之, 以活生起也, 動振作也, 運周旋也, 化變通也.”

25) 『人政』, 「凡例」: “潛究人生, 不可違越, 惟當承順之道, 自一身運化, 至交接運化, 至統民運化, 皆效則于大氣運化進退遲速違合順逆, 自有運移之裁御正宜, 因勢而利導, 千百異論, 咸歸尋落, 一統運化, 脗合天人, 是謂人政.”

방법은 유효하지 않다. 이에 그가 제시한 방법이 바로 ‘추측(推測)’이다.

추측이란 문자 그대로 ‘미루어 헤아린다’라는 의미로서, 미루어 헤아리는 대상은 운화기와 운화기로 이루어진 사물이다. 운화기의 활동운화를 물리적 운동성으로 파악하고, 운화기를 형질을 지닌 유형의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그는 기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²⁶⁾ 그러므로 경험적 인식에 해당하는 추측만이 운화기를 승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²⁷⁾

혜강이 유가의 천일합일론적 사유를 계승하여 철학의 틀을 세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서양 과학의 성과가 반영된 운화기 개념과 추측의 방법론으로 말미암아 도덕성 중심의 천일합일의 방법론은 그에게서 일변한다. ‘운화기를 추측함으로써 운화기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쌓고 다시 그 지식을 정교에 활용함으로써 천인이 함께 운화하는 사회를 건립하는 것’, 이것이 그가 제시한 방법이다.

『대학』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반영된다. 그리하여 ‘명덕’이란 운화기를 승순하여 천인이 함께 운화하는 ‘천인운화(天人運化)’를 지칭한다.²⁸⁾ 또한 추측이 천인운화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인 듯이, 명덕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 역시도 추측이다.²⁹⁾ 그 결과 『대학』의 8조목 모두를 추측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혜강 대학관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천인운화는 여러 번 추측하고 증험하여 그것을 밖에서 얻고, 그것을 안에 간직하고, 기회에 따라 그것을 다시 밖으로 활용한다. 이와 같은 원리도 『대학』 8조목의 격물치지는 그것을 밖에서 얻는 것이며, 성의정심은 그것을 안에 간직하는 것이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그것을 밖으로 활용하는 것이다.³⁰⁾

그는 『대학』의 8조목을 삼등분하여 ‘밖에서 얻는 것’, ‘안에 간직 하는 것’, ‘밖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추측 과정의 분류와도 같다. 추측의 과정은 밖에 있는 사물로부터 지식을 얻는 ‘입(入)’, 얻은 지식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류(留)’, 간직한 지식을 다시 행사와 사무에 활용하는 ‘출(出)’로 삼등분된다.³¹⁾ 그렇기에 격물치지는 추측의 ‘입’에, 성의정심은 추측의 ‘류’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추측의 ‘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8조목이 곧 추측의 과정인 셈이다. 『대학』에서 8조목은 명덕을 천하에 밝히기 위한 단계적 순서를 말한다.³²⁾ 그렇기에 명덕을 밝히는 방법인 추측이 8조목과 등치되는 것은 논리적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6) 『氣學』 권1-6: “其實, 運化之氣, 形質最大.”; 『氣學』 권1-33: “還天下本無之無形, 學天下本有之有形, 措天下差誤之教文, 明天下氣化之學問. 天人之道得正, 政治之術得安.”

27) 추측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1965년 박종홍이 처음으로 최환기 철학을 경험주의로 규정한 이후, 경험주의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가장 자세한 논문으로는 柳生眞, 「惠圃 崔漢綺의 推測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가 대표적이다.

28) 『氣學』 권2-3: “若不以耳目見聞, 天人之運化磨琢灑灑, 則精明何以生焉?……縱有稟質之秀美, 必也講明天人運化, 見得人物導率之方然後, 是謂明德, 可以學措於天下, 以化昏悞之民.”

29) 『推測錄』 권1, 「推測提綱」 ‘明德漸達’: “推測之爲明明德功夫.”

30) 『氣學』 권1-98: “天人運化, 累驗而得之於外, 成象而藏之于內, 隨機而用之於外. 卽大學八條, 格物致知, 得之於外也, 誠意正心, 藏之于內也, 修身齊家治國平天下, 用之於外也.”

31) 『神氣通』 권1, 「體通」, 「收入於外·發用於外」: “人情物理, 從發通, 而得來於外, 習染於內. 及其發用, 施之於外. 完然有此入也留也出也三等之跡.”

이러한 혜강의 대학관은 과연 수기치인의 틀과 병행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손병욱은 혜강은 기존의 수기치인의 틀을 벗어나 ‘인식과 실현의 구조’로서 대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³³⁾ ‘인식’과 ‘실현’이란 각각 ‘운화기에 관한 추측’과 ‘추측지식의 활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추측의 ‘입과 류’가 ‘인식’에 해당하고 ‘출’이 ‘실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타당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기치인의 틀이 그에게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식과 실현의 구조가 혜강 대학관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수기치인의 틀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인식에 해당하는 추측 지식의 축적은 결국 그 지식을 사회 건립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에 해당하는 인식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예비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단계적 순서를 고려한다면, 인식을 수기에 활용을 치인에 배속시키는 것 역시 타당하다. 그러므로 인식과 실현의 구조는 수기치인의 틀로서 환원 가능한 것이다. 다만 수기치인을 인식과 실현이라는 틀로서 재해석할 때, 혜강이 해석한 8조목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8조목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차별적 특징은 ‘수신’을 수기가 아닌 치인에 배속시킨다는 점이다. 혜강은 축적된 운화기에 관한 지식을 개인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을 수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신을 수기가 아닌 치인으로 규정한다.³⁴⁾ 즉 수기에서 추측 지식이 축적되면,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천하의 범주에 각각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서, 이 또한 8조목을 추측의 과정으로 설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혜강은 이처럼 수기치인을 모두 추측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치지도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바로 추측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정치지도자가 천인이 함께 운화하는 정교를 수립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핵심역량은 추측에 있는 것이다.

Ⅲ. 추서와 추측 개념에 나타난 정치리더십의 행위와 그 성격

앞 장에서 추서와 추측이 다산과 혜강의 『대학』 해석을 관통하는 키워드이자,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추서와 추측은 그 개념의 의미가 상이한 만큼 그것이 정치행위로 발휘될 때 나타나는 성격 또한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 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비교분석을 서술할 것이다. 아울러 비교의 용이함을 위해 두 가지의 공통된 범주를 정하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다산과 혜강의 정치리더십을 차례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32) 『大學』：“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

33) 손병욱, 위의 책, 53쪽.

34) 『氣學』 권1-78: “修身，隨一己之運化，而少壯老衰，知所先後，以做學業。”

1. 정치리더십의 발휘와 정치행위의 성격

(1) 추서에 담긴 유위의 실천성

『대학공의』에서 치인은 정(政)과 교(教)로 구성되며, 정교는 모두 효제자의 명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산은 기본적으로 유가의 덕치를 계승한다. 다산이 강조한 효제자는 부자·형제·군신 등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인의 실천이기에, 인의 실천방법으로서의 추서는 덕치를 위해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서 군덕에 해당한다.

추서가 이처럼 군덕에 속하는 개념이지만, 추서에 근거한 치인의 정치행위에 있어서는 군주의 적극적 실천성이 요구된다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성은 군덕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치인의 정치행위에 있어서는 무위의 성격이 강조되는 주자학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주희가 강조한 군주의 무위적 성격은 『논어』에서 언급된 순임금의 ‘무위이치(無爲而治)’를 근거로 두는데, “군덕이 성대하면 작위하지 않고도 저절로 백성이 감화된다.”는 의미로서 무위이치를 해석하고 있다.³⁵⁾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의 수기 중심의 대학관, 즉 수기의 도덕적 수양이 심화되면 저절로 치인이 성취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³⁶⁾

반면에 다산은 이러한 주장에 큰 반감을 표한다. “군주의 무위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를 날마다 부패하게 하는 이유이다.”라고 단언한 그는 공자의 무위이치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다.³⁷⁾ 요순이야 말로 사공에 분발한 대표적 정치지도자로서, 무위이치라는 공자의 언명은 단순히 순임금이 성실한 신하를 22명이나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³⁸⁾ 이처럼 다산은 유가에서 성왕으로 추앙받는 요순의 정치를 무위이치가 아닌 유위이치(有爲而治)로 재해석함으로써, 주자학과는 다른 유위의 실천적 정치리더십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위이치가 군덕에 근거하듯이 다산의 유위이치 또한 군덕에 근거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추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첫째로 추서 역시 군덕에 속한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이라는 점이다. 다산은 추서를 용서와 구분하면서, 추서는 도덕적 자수를 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³⁹⁾ 효제자의 실현이 대학의 삼강령으로 도출된 것은 군주가 백성의 도덕적 욕망이 효제자에 있음을 추서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성의 도덕적 욕망이 효제자에 있음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군주 자신이 도덕적 자수를 통해 효제자의 마음을

35) 『論語集註』, 「衛靈公」 15장의 注: “無爲而治者, 聖人德盛而民化, 不待其有所作爲也。”

36) 배병삼은 수기치인은 성리학적 리더십의 구조적 측면이고, 무위이치론은 이 구조를 정당화하는 경학적 근거라고 말한다. 덧붙여 그는 무위이치론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대학장구』에서 나타난 수기 중심의 성격과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배병삼, 「조선시대 정치적 리더십론: 수기치인과 무위이치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 4, 한국정치학회 1997년, 51~55쪽).

37) 「邦禮卍本引」: “使人主每欲有爲, 必憶堯舜以自沮, 此天下之所以日腐, 而不能新也。”

38) 『尙書知遠錄』 권2, 「下丁十 有能奮庸」: “余觀奮發事功, 莫如堯舜.”; 「邦禮卍本引」: “孔子謂舜無爲者, 謂舜得賢聖至二十二人, 將又何爲, 其言洋溢抑揚. 有足以得風神於言外者. 今人專執此一言, 謂舜拱默端坐, 一指不動, 而天下油油然化之. 乃堯典臯陶謨, 皆浩然忘之, 豈不鬱哉?”

39) 『大學公議』 권3-4, 「鋪案」: “推恕容恕, 雖若相近, 其差千里. 推恕者, 主於自修, 所以行己之善也. 容恕者, 主於治人, 所以寬人之惡也. 斯豈一樣之物乎?”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추서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⁴⁰⁾ 만일 군주가 사심만이 가득하다면 비록 추서를 한다 할지라도 효제자는 결코 도출될 수 없다. 그렇기에 추서는 도덕적 자수를 주로 삼으며, 군덕에 속한 개념인 것이다.

둘째로 추서 역시 유위의 정치리더십을 통해 발휘된다는 점이다. 실천적 행위가 뒤따라야 덕의 명칭이 비로소 성립하듯이, 추서 또한 치인이 정치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진정으로 추서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위의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⁴¹⁾ 『대학공의』에서 추서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혈구지도(愨者 絜矩之道也) 개념에서 이러한 성격은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마음으로 곡척을 삼아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사심을 헤아려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하며, 공평하지 못한 것을 공평하게 한다면, 이로 인해 마음과 몸이 모두 바르게 될 것이다. 나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하는 것(正己以正物), 이것이 바로 평천하의 요체이다.⁴²⁾

다산에게 혈구지도란 나를 바르게 하면 그 영향력에 의해 타인이 저절로 교화되는 ‘正己以物正物’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한 후에도 타인을 바르게 하는 실천적 행위가 추가되는 ‘正己以正物’이다. 즉 혈구지도란 수기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는 추서 역시 그렇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추서가 나를 바르게 하는 도덕적 자수가 바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백성의 교화가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치인의 정치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효제자의 실현은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추서의 이러한 실천적 성격은 다산이 대학의 대경대법이라고 칭하는 ‘태학의 삼례’에 관한 해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삼례 가운데 하나인 ‘양노(養老)’에서의 ‘노’를 ‘오노(吾老)’라고 해석한 주희의 견해에 반대한다. 군주는 신민(臣民)과 더불어 장유의 서열을 따지지 않기에, 양노의 노는 결코 오노가 될 수 없다는 게 다산의 주장이다.⁴³⁾ 만일 양노의 노를 군주의 아버지로 해석하면 양노의 예는 결국 군주의 도덕적 자수로만 국한되어, 정기이물정이 아닌 정기이물정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우려한 다산은 양노의 노를 ‘기노(耆老)’로 해석함으로써 태학의 삼례를 군주의 실천적 정치행위로 확립하여 『대학』의 도를 바로 세우자고 한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효제자로서 민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주자가 태학에 나아가 백성 앞에서 몸소 삼례의 법을 보이는 실천적 정치 행위가 수반될 때만이 ‘정기이물정’으로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⁴⁵⁾

앞장에서 밝혔듯이, 태학의 삼례가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효제자를 바라는 백성의 욕망을 추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태학의 삼례가 이처럼 치인의 정치행위로서 정립된 것은, 추서가 단순히 헤아림에

40) 『大學公議』 권3-7: “以我之孝弟慈, 知民之亦皆願孝弟慈.”

41) 「原德」: “因命與道. 有性之名. 因己與人, 有行之名. 因性與行, 有德之名, 徒性不能爲德也.”

42) 『大學公議』 권3-4, ‘籟案’: “以心爲矩, 以絜六合之交際, 齊其不齊, 平其不平, 於是乎心與身皆正矣. 正己以正物, 此平天下之要法也.”

43) 『大學公議』 권3-6, ‘籟案’: “天子諸侯之自養其親, 其可曰老老乎? 天子之於臣民不序長幼, 其可曰長長乎?”

44) 같은 곳: “今以此節爲自修之孝弟慈, 則孝弟慈三德, 仍與太學無涉, 此書不得爲太學之書, 此道不得爲太學之道.”

45) 같은 곳: “先聖先王, 處胄子於太學, 教胄子以老老長長之禮, 示萬民以老老長長之法. 使嗣世之爲人君者, 身先孝弟, 以率天下, 使當世之爲臣民者, 興於孝弟, 咸歸大化.”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물(正物)이라는 실천적 정치행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으로서의 추서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만 완성되며, 그 결과 유위의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

(2) 추측에 담긴 박학성

다산의 추서가 정치리더십에 있어 유위의 실천적 성격을 나타내지만, 도덕적 자수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추서는 덕에 속한 개념이다. 이와 달리 혜강의 추측은 경험론적 인식작용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덕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부터 양자의 정치리더십의 행위와 그 성격은 점차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추측이 덕과 무관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혜강이 유가의 덕 자체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요순과 주공을 모범으로 삼아 교민을 정치의 핵심요소로 파악하는 동시에, 오류를 인도의 대체로 삼고 있다.⁴⁶⁾ 다만 추측이라는 인식행위가 도덕과 무관한 성질의 것일 뿐이다.

혜강은 선천적 도덕 본성을 부정하고 추측 기능을 인간의 본질로서 규정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기호의 경향성으로 파악함으로써 성리학의 본연지성 개념을 부정하는 다산과 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혜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측 행위 이전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경향성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⁴⁷⁾ 문화기로부터 품부된 인간의 본질은 추측이라는 마음의 인식능력일 뿐이기에, 추측 이전의 마음은 마치 백지상태와도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본질을 추측으로 규정한 혜강 철학에서는 교민과 오류의 정립에 필요한 도덕의 단서들을 인간 본성에서 찾을 수 없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추측의 결과로서 수립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제와 같은 경상윤리도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고 추측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⁴⁸⁾

다산이 유위이치의 근거를 유가의 성인에게서 찾았듯이, 혜강 역시도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성인에게서 찾는다.

친기문화에 승순하여 인도의 표준을 세우는 것이 성인이 경전을 지은 본래 뜻이다. 후대의 이른바 훈고·장구·의리라는 것들은 다 경의(經義)를 해석하는 것인데, 성인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기는 쉬워도 문화하는 기에 어김이 없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화기에 합치하여 성인의 취지에 어김이 없는 것이 경의를 잘 해석하는 것이다.⁴⁹⁾

46) 『人政』 권11, 「教人門 四」 '儒術': "儒術, 乃統民運化之道也. ……至於百官萬姓, 同寅協恭, 制化政教, 因治而慮亂, 因亂而圖治, 不可無儒術. ……況自堯舜周孔以來, 統民制治, 皆尊此術乎. "; 『人政』 권8, 「教人門 一」 '人道': "人道大體, 在於敷行五倫, 修明政教."

47) 혜강은 맹자의 유자입정(孺子入井)에 대한 주희의 본성론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사단의 마음은 모두 추측 경험의 산물이라고 규정한다.(『人政』 권9, 「教人門 二」 '善惡虛實生於交接': "前日聞知壓溺者多死, 故乍見孺子入井, 有怵惕惻隱之心. 曾未聞壓溺之患者, 見孺子入井, 未有惻隱之心.")

48) 『推測錄』 권1, 「推測提綱」 '愛敬出於推測':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 無不知敬其兄, 出於推測. 未有推測, 親與兄天屬之義難知, 何暇論其愛敬."

49) 『人政』 권14, 「選人門 一」 '選經術': "承順天氣運化, 以建人道經常, 卽聖經本義. 後來訓詁也, 章句也, 義理也, 皆所以解釋經

그가 볼 때 성인이 경전을 지은 본의는 운화기를 승순하여 정교의 표준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 본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추측을 통해 운화기를 승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인을 본받는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추측은 비록 덕에 속한 개념은 아닐지라도 운화기를 추측하여 승순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가의 경상윤리와 덕치를 계승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해강은 여타의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윤리 외에도 부국강병과 경세치용을 위한 여러 조목들을 국가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조목들 역시 윤리와 마찬가지로 추측을 통해 수립된다는 점에서 같다.⁵¹⁾ 다만 추측의 방법은 동일하더라도 각각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추측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윤리와 기술 모두가 인정(人情)을 추측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기술에는 인정이 아닌 물리(物理)가 추측 대상이 된다. 이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위해 추측 대상이 각각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수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제가를 위해서는 가정이, 치국을 위해서는 백성이, 평천하를 위해서는 천하인이 추측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⁵²⁾

명덕을 밝혀 천인이 함께 운화하는 사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을 위한 모든 조목들이 운화기에 승순해야 한다. 운화기에 승순은 운화기로 이루어진 사물들에 대한 추측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각 조목들을 위한 추측 대상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조목들을 운화기에 승순시켜 치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들에 관한 추측의 양적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국가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정치지도자가 핵심역량인 추측을 발휘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그것의 양적 확대를 추구해야만 한다.

당시의 조선은 서학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지식의 변동을 겪고 있었다. 지구 구형설과 양전설의 발견, 세계지도의 유입, 역법의 변화 등이 바로 그것이었었는데, 해강은 새롭게 유입된 이러한 지식과 정보들까지도 모두 정치지도자가 추측해야할 대상에 포함시킨다.⁵³⁾ 그러므로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으로서의 추측은 그것의 실천에 있어 양적 증대라는 박학(博學)의 성격을 갖는다.⁵⁴⁾

2. 정치리더십의 발휘를 위한 조건과 그 함의

(1) 추서의 권력 지향성

『대학공의』의 궁극적 목적은 효제자의 인륜이 실현되는 사회의 건립이며, 이를 위한 정치의 주체는 바로

義，而無違於聖人之旨，差易，無違於運化之氣，誠難。合於運化氣，而無違於聖人之旨，乃是善釋經義也。”

50) 『推測錄』 권1, 「推測提綱」 ‘體天法聖’: “天將物化，顯其道德，聖立神教，闡其常彝，民以推測，體天法聖。”

51) 『神氣通』 권1, 「體通」 ‘十七條可通’: “天下可通之事，雖云多端。語其本，則我神氣通於彼神氣，彼神氣達於我神氣也。語其事類，則倫綱也，仁義也，禮樂刑政也，經史記述也，士農工商也，財用也，算數也，歷象也，器皿也。”

52) 『人政』 권5, 「測人門 五」 ‘測因氣而達’: “治國之道，在於測一國之民，齊家之道，在於測一家之人。”

53) 『氣學』 권1-1: “宇宙羅列，方今運化，資賴之根基，前後之標準。學者須定根基立標準，然後庶尋方向，亦可措行。……往古來今，變遷無根，上下四方，循環無端，若不以當今之耳目所觀記，動靜所踐行，為根基標準，觸處悠泛，所學罔味。”

54) 여기서 박학이란 운화기에 관한 추측 지식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人政』 권11, 「教人門 四」 ‘博學’: “所謂博學，在於書冊，詳備之後，亦無以誇其能，當於書冊，聚其實用，統其大義。見得運化之妙，實為行事大源。方今眼前羅列之人物林總，充滿氣化，實為我博覽博學之田地.”).

군주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군민간의 관계 속에서 추서에 입각한 양민과 교민의 정치를 베풀어 효제자의 실현을 주도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치도(治道)가 확립되었다 할지라도, 당시 현실에서의 실효성은 저조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다산이 볼 때,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 원인은 봉당의 득세와 이로 인한 관리들의 중간착취였고,⁵⁵⁾ 이러한 폐단을 야기한 정치제도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군주가 아무리 『대학』의 치도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관리들의 사육과 중간착취는 이러한 정책을 민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군민의 관계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다산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는데, 그 개혁론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왕권 강화에 관한 것이다. 『경세유표』와 『상서고훈』의 「홍범」편 등에서 제시된 그의 개혁론을 보면 중간세력의 개입 없이 군주가 민에 직접 정치할 수 있도록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왕권 강화로 평가받아온 그의 개혁론에 대하여 최근 왕권 강화보다는 왕권의 공적 성격의 확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⁵⁶⁾ 논자 또한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다산에게서 왕권의 강화와 왕권의 공적 성격 확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간 세력의 착취가 배제된 공적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당시 노론의 득세로 말미암은 왕권의 수동성과 무위이치를 지적하던 다산의 의도를 고려할 때,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론은 필수적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산의 개혁론에서 왕권의 강화와 공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왕권 강화가 불가피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공공성 실현을 위해 왕권 강화의 개혁론이 제시된 문제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중간세력의 착취와 사육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다시 중간세력의 착취와 사육을 근절이 제시된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분리된 군민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추서에 입각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치국평천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추서의 방법론은 결국 그 시행 주체인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될 때만이 중간세력의 개입이 근절되어 민에게 그 효력이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5) 중간계급의 착취를 향한 다산의 비판은 『목민심서』와 『상서고훈』 등의 저술 곳곳에 나타나며, 봉당의 득세로 왕권이 약해진 것을 그 근본적 원인으로 파악한다(『尙書古訓』 권4, 「洪範」: 「日月歲時既易者, 小陵大, 下僭上, 庶官陵大臣, 大臣僭乘輿也. 如是則權柄下移, 欺蔽比周, 治道昏亂, 賢俊隱微, 而家亦以亡矣.」)

56) 이와 관련하여 김태영은 군주는 법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제도왕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하며(김태영, 「茶山의 國家改革論 序說」, 姜萬吉 외, 『茶山의 政治經濟 思想』, 창작과비평사, 1996(3판), 104쪽), 백민정은 다산의 왕권은 관료조직이라는 제도적 매커니즘의 역량에 의존하여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백민정, 「정약용 『經世遺表』 구성의 철학적 원리: 六經四書에 대한 다산의 經學 註釋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7, 한국동양철학회, 2012, 153~154쪽). 또한 김태희는 <경세유표>에서 왕실 기구의 특별 취급을 없앤 것이 군주를 공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 1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68쪽), 정운채는 다산 왕권의 절대성은 사적 지배를 배제하는 공공성을 담지하기 위해 상정된 것이라고 평가한다(정운채, 「정약용의 자작적(自作的) 인간관과 왕정개혁론: 조선 후기 정치권력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하여」, 『韓國政治學會報』 33: 3, 한국정치학회, 1999, 42쪽).

이러한 특징은 『상서고훈』과 『대학공의』의 관련성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상서고훈』의 「홍범」편은 다산이 왕권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학적 근거로서 활용한 책인데, 여기서 그는 관리의 등용과 경제권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권력이 모두 황극(皇極)인 군주에게 있다고 설명한다.⁵⁷⁾ 아울러 이러한 권력이 군주의 소유인 것은 중간 세력의 개입 없이 군주가 직접적으로 백성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⁵⁸⁾ 다산은 『대학공의』의 연원을 『상서고훈』에서 찾고 있는데, 『대학공의』의 용인과 이재는 특히 「홍범」편의 황극의 권력에 속하는 관리의 등용과 경제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은 추서의 원리로 시행되는 군주의 용인과 이재 역시 그 권력이 군주에게로 집약되어 있을 때만이 그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추측의 소통 지향성

『대학공의』에 나타난 추서의 리더십은 정치지도가 자신을 기준삼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배려와 공감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려와 공감의 중심 내용인 효제자는 배려와 공감 이전에 이미 그것이 정치지도자에게 갖춰진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에 추측의 리더십은 정치지도자가 민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의 욕망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추측하기 이전에는 그 어떤 정책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추측에 기반한 정치는 민의(民意)의 추측이라는 군민간의 소통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왕권이 수반되어야 하는 추서의 리더십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추측은 특정 대상에 활용할 지식을 그 대상으로부터 얻어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운화기에 승순한 사회 건립을 위해 활용할 지식은 운화기에 대한 추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다시 민의를 추측해야만 민의와 부합한 정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천하를 대상으로 명덕을 밝히기 위해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추측하여 그것을 자신이 보고 들은 지식으로 삼는 군민간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시 되는 것이다.⁵⁹⁾

해강 역시 다산과 마찬가지로 붕당의 폐단을 지적한다. 그러나 폐단의 내용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해강은 다산과 달리 붕당의 폐단은 집권 세력 소수만의 견해와 이익에 따라 국가 전체의 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결국 백성의 실정과는 분리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난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⁶⁰⁾

정치에 있어 민의의 추측이라는 소통의 강조는 이러한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해강의 대책이다.

57) 『尙書古訓』 권4, 「洪範」: “一曰壽之柄, 在皇極也. 尺土寸地, 無非王田, 斗祿鞭土, 罔非王臣. 二曰富之柄, 在皇極也. 休養生息, 唯辟其恩, 驅使勞動, 唯辟其命. 三曰康寧之柄, 在皇極也. 立教以明倫, 修道以達天, 王命司徒, 王命典樂. 四曰攸好德之權, 在皇極也. 稽其功行, 定其善惡, 或許之陟配, 或賜之惡謫. 五曰考終命之權, 在皇極也.”

58) 『尙書古訓』 권4, 「洪範」: “斂時五福者, 人主總攬權綱, 握之在手中也. ……凡此威福之權, 皇則攬之, 皇則布之, 斂時五福, 用敷錫厥庶民也. 後世人私其田, 皇無寸土, 則皇無以錫民富矣.”

59) 『氣學』 권2-25: “天人運化之氣學, 合天下人之見聞, 以爲耳目, 統天下人之驗試, 以爲法例, 得之於天下之人, 以傳之于天下之人.”

60) 『氣學』 권2-30: “治世之所痛嫉, 莫甚於朋黨. ……亦可見千古起滅之朋黨諸人, 都歸于害人道之科.”; 『神氣通』 권1, 「體通」: “通有大小遠近”: “國家政令, 通遠近之民情, 將有治平之象, 通於近習之私情, 而壅蔽遠近之民隱, 將有釀禍之漸.”

만백성의 사정(私情)을 얻어서 누구나 다 생업에 안정되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공론이다. 만약 한 사람의 사정만을 고려해서 만백성의 사정을 해롭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정이다.⁶¹⁾

국가 운영을 위해 추측해야할 대상은 많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긴 추측 대상은 바로 민의이며, 이런 점에서 군민간의 소통은 정치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혜강은 소수의 집권세력만의 견해를 통해 치국평천하를 위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으며, 백성과의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치인의 성패여부는 소통의 대소와 주편(周偏)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이런 점에서 추측의 리더십은 소통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⁶²⁾

IV. 맺음말

다산과 혜강은 개화기 이전 조선후기의 혼란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철학을 개진했으며, 선진유가에 이론적 정당성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철학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대학』 해석에 나타난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과 성격을 연구 주제로 삼아 이러한 점을 비교하였다.

먼저 다산의 경우 인의 실천방법인 추서를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한다. 실천적 함의가 부각된 추서는 유가의 덕치를 계승하면서도, 치인의 실천적 정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작동한다. 그가 치인의 정치행위를 강조한 데에는 당시 군주의 수기에만 강조점을 둔 무위이치의 정치행태로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추서의 원리를 정치에 적용하여 민을 향한 적극적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당시의 심각했던 관리들의 중간착취는 그 정책을 민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큰 방해물이었다. 이에 다산은 군민간의 이인(二人) 관계 내에서의 추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치적 주체인 군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론을 병행한다.

반면 혜강은 추측을 정치리더십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8조목 모두를 추측으로서 설명한다. 8조목이 명덕을 밝히기 위한 과정인 것과 같이, 혜강 철학에서 추측은 천하에 명덕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운화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사물들을 추측함으로써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을 다시 정교에 활용함으로써 명덕이 성취된 사회를 건립해야 한다.

혜강 역시 다산과 마찬가지로 봉당의 폐단을 지적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소수 집권세력의 사익과 견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봉당의 폐단으로 파악한 혜강은 추측의 양적 확대를 통해 이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인정과 물리를 추측해야만 치국평천하를 위

61) 『人政』 권17, 「教人門 四」 ‘一人私情害選舉’ : “使萬姓各得私情, 無不安所, 卽是公論. 但顧一人之私情, 以害萬姓之私情, 乃真私情也.”

62) 『人政』 권5, 「測人門 五」 ‘修齊治平運化’ : “若只知自己齊家, 不顧人之齊家, 可見其齊家所測偏而不通也. 治國平天下, 亦在於所測人道之大小周偏.”

한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인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추측 대상이 민의라는 점은 정치리더십의 발휘에 있어 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다산과 혜강이 추구한 정치리더십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조선후기 유학의 다양한 발전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정치리더십은 현대의 시민사회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시대적 고민과 독창적 해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丁若鏞,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재단, 2013.
- 崔漢綺, 『增補 明南樓叢書』, 大東文化研究院, 2002.
- 『孟子』, 學民文化社, 1998.
- 금장태, 「다산과 혜강의 인간이해: 실학적 인간관의 두 유형」, 『東洋學』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4.
- 김경수, 「최한기 기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경수, 「다산 정약용의 민권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철학사상』 7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9, 4~6쪽.
-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태학지도」, 『다산학』 8,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 김선경, 「다산 정약용의 정치 철학: 『대학공의』 읽기」, 『한국사상사학』 26, 한국사상사학회, 2006.
- 김윤호 외, 『리더십의 이해』, 형성출판사, 2015.
- 김인석, 「최한기의 窮理 비판」, 『태동고전연구』 1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2.
- 김태영, 「茶山의 國家改革論 序說」, 姜萬吉 외, 『茶山의 政治經濟 思想』, 창작과비평사, 1996(3판).
-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 1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 배병삼, 「조선시대 정치적 리더십론: 수기치인과 무위이치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 4, 한국정치학회 1997년.
- 백민정, 「정약용 『經世遺表』 구성의 철학적 원리: 六經四書에 대한 다산의 經學 註釋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7, 한국동양철학회, 2012.
- 백준철, 「崔漢綺의 이상사회론에 대한 고찰: 『大學』 八條目 중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0,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 손병욱, 「최한기 氣學의 학문체계 탐구」, 실시학사 편, 『혜강 최한기 연구』, 사람의 무늬, 2016.
- 이봉규, 「사서 해석을 통해 본 정약용의 정치론」, 『다산학』 7,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 이연수, 「다산의 『대학공의』 주석을 통해 본 리더십 교육」,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 임형택, 「정약용의 경학과 최한기의 기학: 동서의 학적 만남의 두 길」, 『大東文化研究』 45,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원, 2004.
- 정윤재, 「정약용의 자작적(自作的) 인간관과 왕정개혁론: 조선후기 정치권력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하여」, 『韓國政治學會報』 33: 3, 한국정치학회, 1999.
- 최소자, 「17, 18 世紀 漢譯西學書에 대한 研究: 중국과 한국의 사대부에게 미친 영향」, 『韓國文化研究院論叢』 3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1.
-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태동고전연구』 44: 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 이 논문은 2020년 12월 9일에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Comparative Study on Dasan and Haegang's Political Leadership th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Great Learning*

Kim, Kyungsoo*

Dasan Jeong Yakyong and Haegang Choi Hangi are well known with the representative sirhak scholars as addressing the problems which overcome social chaos in late Joseon dynasty and recover public order, establishing post Neo-Confucianism's and inventive philosophy. For these practical characters are summarized at political philosophy, it has the merit of examining clearly that compares Dasan and Haegang's political leadership though the interpretation of Great Learning.

In this paper, we classifies political leadership into core competencies and characters of action. After that, we compares philosophical characters between Dasan and Haegang's interpretation of Daxue on the classified section. In the core competencies of political leadership secti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political leader are analyzed. In the characters of action section, philosophical character's differences appeared when the core competencies turn into political activities are analyzed. Those are Chuseo(推恕) and Chuchk(推測) implied in Dasan and Haegang's interpretation of Great Learning as a core conception. Thus, the comparison of political leadership between them has a method of study investigating how these two core conceptions are functioned to core competencies and characters of action.

Above all, these comparisons have significance on identifying the original form and development aspect of nationalistic thought about state reformation ideas before the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Key Words] Jeong Yakyong, Choi Hangi, Political philosophy, Great Learning, Leadership

*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Kyungbook National Univdrstity